

석유화학, 대졸초임 연봉 3153만원

커리어, 자동차·건설 이어 5위 기록 ... 조선·중공업 3661만원으로 1위

석유화학기업의 2010년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3153만원으로 5위를 차지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 216사의 대졸 초임 연봉이 평균 3192만원이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남자 사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기본 상여금은 포함하되 인센티브는 제외한 금액이다.

2009년 조사에서 집계된 평균 연봉 3156만원보다 1.0%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조선·중공업 분야 대기업의 연봉이 366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 3398만원, 자동차 3334만원, 건설 3323만원 순이었다.

석유화학·가스(3153만원)와 제조·기타(3134만원), 전기전자·정보통신(3117만원), 유통·무역(3109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봉이 가장 낮았던 업종은 공기업(2700만원)이며 식품·외식(2956만원), 기계·철강(3059만원), 운송(3100만원) 등도 평균을 밑돌았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6/29>